

'KREI리포터' 전북지회 간담회 결과

1. 개요

- 목 적: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및 지회 활성화 방안 논의
- 일 시: 2018년 12월 19일(수) 12:00~14:30
- 장 소: 전북 전주시
- 참 석: 총 12명
 - 전북지회 리포터(10명): 권승룡, 임장섭, 강병준, 윤선웅, 심요섭, 박향숙, 임장욱, 양한오, 하문수, 이익주
 - 연구원 관계자(2명): 김용렬 실장, 김미리 주무원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2:00~13:00	점심식사	- 장소: 광릉불고기
13:00~14:30	간담회	- 농업·농촌 현장여론 - 지회 활성화 방안

2. 주요 논의 내용

○ 농업·농촌 현장여론

- 윤선웅: 연구원에서 개최하는 농업전망 발표대회에 2009년부터 참석하고 있다. 쓴 소리가기는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 농업전망에서 나오는 관측, 전망치는 곧 정부 수매가로 결정된다. 대략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므로 거의 비슷하게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농업은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해마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연구원의 농업 전망치가 농업정책 또는 정부 예산 편성에 맞춰 가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기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정부가 아닌 농업인의 편에 서서 농업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주기

바란다.

- 임장욱: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종자마저 토종 종자 없이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온다.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식량전쟁이 온다면 우리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모두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농산물, 우리의 것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 권승룡: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먹거리에 길들이는 것이다. 현대에는 식구가 모여 앉아 밥 먹을 일이 줄어들고, 빵이나 우유로 때우는 식사가 많아 요즘 세상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당장 우리 식탁부터 바뀌어야 한다.
- 이익주: 우리 지역은 산간지대가 많다. 그나마 있는 농지는 직불제도 때문에 땅값만 오른다. 직불제는 농민을 위한 제도인데, 실상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는 일이 많다.
- 하문수: 우리 지역은 평야지대라 99% 정도 벼농사를 짓고 있다. 본인은 1만 2천 평의 농사를 지어 익산 RPC를 통해 100% 유통하고 있어 판로에 걱정이 없다. 사실 논농사만큼 편한 것이 없다는 것에 동감한다. 그러나 여전히 쌀값은 낮고, 농사는 어려워 지속적인 영농을 위해서는 직불제를 없애서는 안 된다.

○ 지회 활성화 방안

- 박향숙: 중앙회 운영협의회에서 지회별 활동발표를 했었다. 전남지회와 전북지회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올해부터 우수지회 포상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30여 명이 되는 지회 회원 중에 간담회에는 오시는 분들만 오는 것 같다. 일부 활동이 어렵다는 분들과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 회원명부를 만들었다. 참여 의지가 있는 분들도 많으니 함께 잘 이끌어나가 보고 싶다.
- 권승룡: 리포터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지

역간담회 등 모임은 친목이 우선 되어야 한다. 연구원에서 지원하는 모임 외에 틀에서 벗어나 농한기에 가까운 회원들끼리 서먹함 없이 자주 교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 심요섭: 리포터 활동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는 소중한 시간이 보상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수지회가 되고자 욕심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에 2019년에는 다른 지회 못지 않는 활동으로 전북지회를 홍보하고 싶다.
- 강병준: 우리는 지회장, 총무님이 하자는 대로 따를 뿐이다. 두 분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것이 우리 지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큰 열쇠라고 본다.
- 김용렬: 지회별 활동내용은 현재 보고서로 정리하고 있다. 1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했고, 지회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는지 공유토록 하겠다.
- 윤선용: 리포터 한분 한분이 매우 바쁜 사람들이다. 개인별로 모임이 많다보니 사실상 일정 빼기는 쉽지 않다. 사람은 돈과 이익, 또는 정보 등 얻어가는 무엇이 있어야 마음과 몸이 움직인다. 우리 전북마이스터대학 수료생 모임에 가보면 함께 나누는 정보가 굉장하다. 우리도 모여서 그런 정보를 서로 나누고, 하나라도 더 배우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 임장섭: 지난 간담회에 우리 농장에 모신 적이 있었는데, 참여인원이 적어 아쉬웠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한번 방문해 과일도 맛보고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다.
- 임장욱: 우리 농장에도 다음 모임을 추진해도 좋겠다. 가공업체이다 보니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초대하겠다.
- 심요섭: 그럼 내년도 2~3월 중 1분기 간담회는 전북 부안군에서 개최토록 하겠다.
- 박향숙: 우리 지회도 카톡 그룹방을 만들어 일정을 공유하고, 참석여

부를 확인, 소소한 이야기도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다.

3. 이모저모

